

GILLETTE MEN DIED

Ferdinando Frega — Nando the Scribe

Gillettenarrative.com

GILLETTE 남자들은 죽었다

THE FAMILY · 05

한 남자의 삶에는 많은 것이 함께 있지만,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여전히 필요와 욕구다.

이 두 차원 안에서 인간은 자신을 드러내지만, 영적인 부분은 감정적인 결정을 먹고 자란다 — 결코 차갑고 논리적인 추론을 먹고 자라지 않는다.

오늘은 나의 날이었다, 회사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세상을 떠난 나의 Gillette 동료들에게 바친 날.

첫 생각은 당연히 나의 아버지에게로 갔다. 눈물은 끝이 없을 것 같았다,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내게 이렇게 말할 때까지: 계집애처럼 굴지 마라, 너는 Gillette 남자다 — 그리고 묘비 사진 속의 나의 아버지는 그렇다는 듯이 미소 지으시는 것 같았다.

그다음 나는 아버지 시절에 알게 된 회사 동료 Mario를 찾아갔고, 그와 함께 Guido도 만났다 — 우리 셋은 같은 작업 팀에 있었지만, 저마다 성격이 달랐다.

그들은 나를 존중했고, 아껴 주었고, 이야기 하나, 일화 하나를 들려줄 기회라면 무엇이든 좋았다, 영업 출신만이 들려줄 줄 아는 방식으로.

그다음, 한 성당 안에서 — 그들이 실제로 묻힌 곳까지 가는 것은 거리 때문에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— 나는 나를 가르쳐 준 친구이자 지역 매니저였던 Giuliano를, 그리고 회사를 위대하게 만든 그 Gillette Italia의 영업 이사 Di Tullio 박사를 떠올렸다. 그 Gillette Italia는 피로를 모르고 면도날로 무장한 검투사임을 자랑스러워한 남자들을 만들어 냈다.

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, 나는 Camp 할아버지를 생각했다. 나는 그분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 — 우리가 활동하던 시기가 겹치지 않았으니까 — 그러나 세 가지가 우리 둘을 이어 주었다.

우리는 영업 사원이었고, 작가였고, 프리메이슨 단원이었다. 그리고 원을 닫자면, 우리 둘 다 세상과 그 안의 사람들을 바꿀 시스템을 어떻게 세울지 생각했다: 그분은 그것을 물리적으로 해냈고, 나는 인지적으로 해 보려 한다. 그리고 우리 둘 다 그것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다 —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날 때 늘 그렇듯이.

모든 Gillette 남자들이여, 안녕.

Ferdinando